



# 안전보건, 이제 우리도 3만불 시대로 전환하자



한성대 교수 · 한국산업보건학회 회장  
박 두 용

한 나라의 환경안전보건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소득 수준과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체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에 이르면 환경이, 2만불에 이르면 안전이, 3만불에 이르면 보건의 일반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대개 1만, 2만, 3만 불을 기점으로 환경, 안전, 보건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이 일대 전환이 일어나며, 법제도와 국가 관리체계도 근본적으로 바뀐다. 쉽게 말해서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시대는 환경의 시대, 2만불 시대는 안전의 시대, 3만불 시대는 보건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10여 년 전, 삼성반도체 직업병 논란이 시작될 때, 이제 우리나라도 산업보건의 시대로 넘어가나 보다 했다. 이어서 구미 불산누출 사고(2012), 삼성반도체의 불산누출 사고(2013), 현대제철의 아르곤가스질식 사망사고(2013) 등 대형사고들이 연달아 터졌지만 이런 사고들도 산업보건의 시대가 열리는 전조라

고 생각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들 사고는 안전사고가 명백하지만, 불산은 화학물질이라는 이유로, 질식사고는 건강장해의 일종이라고 하여, 산업보건의 문제로 간주해 버렸다.

착각이었다. 착각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면서 여지없이 깨졌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가 아직도 안전의 시대를 넘기는커녕 안전의 시대에 제대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됐다.

2016년, 가슴기 살균제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가슴기 살균제 사건은 우리가 안전의 시대는 고사하고 환경의 시대조차도 제대로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사실 가슴기 살균제 사건은 환경, 안전, 보건문제가 모두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총체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전국이 지진공포에까지 휩싸이게 됐다. 이제 우리는 어느 한구석 안전한 곳이 없을 정도가 되어 버렸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안전에는 혁신이 없다. 원칙과 기본만이 있을 뿐이다.” 안전의 대가(大家)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사실 왕도가 따로 있을 리가 없다. 원칙과 기본을 다시 세우는 일,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먼저 우리는 원칙과 기본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원칙과 기본이라는 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실전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기본인지 조차 제대로 분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유해위험작업의 사내도급 하나만 보더라도, 금지가 원칙이고 일부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하는지, 일단 허용이 원칙인데 일부만 금지시켜야 하는지 헷갈린다.

두 번째 문제는 원칙과 기본을 안다고 해도 원칙과 기본을 지키도록 하는 수단(규제)을 강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실 법제도에서는 원칙과 기본만 명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제사항을 상세히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상세한 세부규정이라는 것이 ‘원칙과 기본’과는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원칙과 기본을 강조한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각종 산업안전보건법, 영,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원칙과 기본이 명확한 선진국에서 법령이나 법적 기준이 더 많다. 사실 안전법령 및 기준은 규제(regulation)라기보다는 규칙(rule)이다. 따라서 세상이 더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규칙은 더욱 정교하고 상세해야 하므로 늘어나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법령 및 기준의 양이나 개수가 아니라 법령과 기준이 원칙과 기본에 잘 부합하느냐 하는 것이다. 수많은 법규제가 있어도 원칙과 기본에 맞는 일관성을 가지고 현실에 부합한다면 법령이 간단 명료해 보일 것이다.

아직도 환경안전보건이 1만불인 시대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3만불 시대로 법제도와 국가안전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다. 그 해답은 바로 '보편성의 원칙'이다.

선진국들의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국가규모, 산업구조, 법체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하다. 안전에는 혁신적인 방법이 있을 수 없고 원칙과 기본만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보편성의 법칙이다.

선진국에 보편적으로 있는 규제와 제도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선진국에는 없는데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법제도는 모두 없애는 것, 이것이 바로 3만불 시대로의 지름길이요, 혁신이라면 혁신일 것이다. 🤖